

외교

# "한국, 中이 한반도 운명 좌우한다는 '차이나 공포' 벗어나"

정시행 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6.01.26 03:00

**[本紙·브루킹스研·국가전략研 국제 콘퍼런스]****중국의 핵심 이익 영역이 북한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한국은 중립정책 발전시켜야  
美는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북핵태도 바꿀 가능성 고려해 솔직한 대화하며 리더십 보여라**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朝野)의 복잡한 속내가 읽혔다. 미국의 북핵 대응과 대(對)중국 정책의 방향을 놓고는 한·미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문제에 소극적인 미국과 이중적인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한국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 ◇북핵 키운 미·중 책임론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올해 미국은 대선 국면인데 많은 후보자가 외교보다 내부 문제와 민족주의로 회귀하는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전에도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북핵 문제를 키운 한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선 북핵은 '심각'은 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후순위 문제"라고 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역대 진보·보수 정권의 모든 대북 정책은 실패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한·미 동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한·미 동맹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북핵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곤 한동글로벌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정민 연세대 교수. /이태경 기자

중국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의 다가온 시선을 감수하며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정도로 모험을 했는데, 북핵 도발에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폴락 선임 연구원도 "중국이 변한 듯했고 한국 정부도 노력했지만, 한·중 관계의 규모가 온전히 북·중 관계를 압도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관련, 한국 학자들은 "한국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화주의에 편승할 이유가 없다"(박원곤 한동대 교수) "통일에 결정적 변수가 될 중국이 필요해 잡으려 한 것일 뿐 끌려 다닌 적은 없다"(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반박했다.

#### ◇대북 군사 대응 선택지는

향후 미국의 대북, 대중 정책은 어떻게 되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전통적 다자 외교와 기존의 제재 외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전 국방부 장관)도 "북핵을 협상으로 포기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벗어나 목표를 재설정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 일각에서 이는 '전술 핵 배치' 등 핵무장론에 대해선 박철희 교수 등이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에 배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한다"며 "차제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의 역할을 제고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사드를 포함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대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한·미 모두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100% 탐지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폴락 선임 연구원도 "한국이 미국 기반의 사드를 수용하면 중국의 반응이 더 격렬해질 것"이라며 "통일 논의에 있어서 사드 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인내심과 리더십 필요

전문가들은 임기응변식 대응 대신 한국만의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중국 공포'를 극복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우리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지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나 통일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나 당장의 현상 변경엔 거부감을 갖는다"며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 영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한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대북 정책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해나가면서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키워드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란 무엇인가?

[키워드정보]'미국 사회과학 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는?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